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detailed illustration of a Zergling, a small insect-like creature from the StarCraft II universe. It has a purple and brown segmented body, multiple pairs of jointed legs, and a large, glowing green eye on its right side. The creature is shown in a dynamic, forward-leaning pose, with its mouth open as if breathing fire or acid, which is depicted as a bright yellow and orange flame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ark, with purples, browns, and greens, creating a menacing and intense atmosphere.

STARCRRAFT®

HEART OF THE SWARM

암흑 속에서

데이비드 제롤드

“대박인데!”

BLIZZARD
ENTERTAINMENT

제이크는 눈앞의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씨익 웃었다. 함선이 아직 멀리 있어서 행성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치는 최적이었다. 아니, 최적 이상이었다.

주 궤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황색의 따뜻한 태양이 있었고, 조수를 일으키고 행성의 축을 안정시키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달이 세 개 있었다. 중력은 표준 중력의 90.9%였고, 표면의 73%가 물로 덮여 있었으며, 대기 중 산소 농도는 31%, 평균 기온은 섭씨 24 도였다. 계절에 따라 강한 태풍이 불기는 하지만, 대기가 있는 행성은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길고 불규칙한 모양의 대륙 하나가 북극 지방부터 남쪽의 온대 지방 바로 너머까지 뻗어 있었고, 큰 섬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다. 섬은 대부분 대륙의 해안에 가까웠지만, 몇 개는 먼 곳에 있었다. 초목의 색은 호박색에서 남색까지 다양했으나, 주황색과 분홍색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가 제법 높은 것으로 보아 초식동물의 생물량이 상당할 것이며, 그 초식동물에 의존하는 육식동물도 많을 것이었다. 화산 활동이 탐지되었으나, 재난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다.

생명이 살기 좋다.

딱 적당하다.

대박이다.

게다가, 이 행성은 주요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기에 누가 그를 찾으러 올 것 같지도 않았다. “하! 정말 딱이군! 내 이에 너를 대박성이라

칭하노라.” 어쩌면 쪽박의 행성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부분은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괜히 불길한 소리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는 부관에게 함선을 극궤도에 진입시키라고 명령한 후, 스캐너를 조작해 행성 표면의 지도를 그리게 했다. 이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있을 테니까. 오후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려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고, 현관에 앉아서 해넘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서쪽이 탁 트인, 열대 지방의 터를 찾고 싶었다.

사실은 원하는 게 아주 많았다. “부관, 과일과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을 찾아라. 규칙적으로 씻고 수차를 설치해 전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깨끗한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배를 탈 수 있게 해변에 가까우면서, 지진해일이 일어나도 안전할 만큼 높은 곳이어야 한다. 근처에 활화산이나 불안정한 단층이 있으면 안 되고, 대선풍 지대에 속해 있어서도 안 된다.”

“작업 중입니다.” 인공지능이 대답했다.

제이크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적도를 살짝 비긴 곳에 있는 섬이 어떨까. 그러면 좋겠는데.”

“내륙 지방이 자원은 더 풍부할 것입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동하는 동물들의 경로에 있게 될 것이다.” 스캐너에 의하면, 놀라울 만큼 덩치 큰 ‘것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루어 신선한 풀을 찾아 땅 위를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뒤를... 덩치가 거의 비슷한 육식동물들이 떼를 지어 쫓고 있었다. “진화의 고속도로 위에 사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난 바보가 아니거든.”

“물론 아니시지요.” 부관이 맞장구를 쳤다.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능 수치가 상당히 높으시니까요.”

“닥쳐.” 제이크가 말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온 일이었다.

사망률 통계를 처음 돌려 보고 20 분 후, 탈영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전부터 이렇게 혼잣말을 하던 터였다. “늙은 군인도 있고 용감한 군인도 있는데, 늙고 용감한 군인은 없군.” 그러다가 문득 늙은 군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그냥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복무 기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퇴역 후에는 웅한 황무지 한복판에 지어진 2m 짜리 주택에 사는 신세가 되겠지. 땅에서 자라는 것이라곤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풋돌밖에 없을 테고.

제이크는 최대한 몸을 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우선, 어느 보직이 가장 사망률이 낮은지 확인했다. 보급선 조종사는 최선은 아니었지만 최악도 아니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점이 한 가지 있었다. 거주민 우주선은 보통,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착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모두 싣고 있었다.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제이크는 보직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일곱 해, 공포의 일곱 해가 흘렀고, 아주 나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일곱 해가 그의 계약 기간이었다. 일곱 해만 지나면 그만둘 수 있었다. 그만둘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일곱 해를 채운 사람들도 대개는 전력 손실 저지 명령으로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다. 연장 명령이 전달된 날, 그날이 제이크가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한 날이었다.

그는 임무를 착실히 수행했고, 지쳤으며, 이제 전투에 참여할 기력이 없었다. 돌아가면 맞이해 줄 가족도 없었다. 저그의 공격으로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십 대일 때 입대했다. 군인이라면 모두 그러듯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는 있었지만, 더 나은 삶이란 없었다. ‘이런’ 삶밖에 없었다.

제이크는 항법사에서 부조종사로, 또 조종사로 진급했다. 그는 또한 장교 훈련생이었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한편으로 혜택도 누렸다. 그렇기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우주는 사람들이 아는 부분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각양각색의 세계를 보았다. 황량한 세계와 풍요로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와 추한 세계를 보았다. 그는 군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도를 연구했고, 천체물리학과 태양 활동을 연구했다. 상관들도 그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전략 기획 및 대응책 분야의 보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서, 탐사와 지도 작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것은 우주 공간 탐사정이 사방 수십 광년 거리 내에서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점점 방대해지는 지식 덩어리였다.

제이크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을 검색했다. 어떤 행성은 너무 크거나 색깔이 부적당했다. 어떤 행성은 방사능을 과도하게 방출했다. 크기와 색깔이 딱 적당한 행성에서 살 곳을 찾아야 한다. 제이크의 상관들은 그가 저그 감염 확률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그 무리는 종족 전쟁 이후로 잠잠했지만, 그래도 상관들은 허가했다. 장기 계획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이크가 자기만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기회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왔다. 제이크가 항성계 하나를 고르기도 전이었고, 후보를 좁히기도 전이었다. 그때까지도 가깝고 먼 곳의 후보를 여럿 고려하고 있었고, 얼마나 멀리 가야 비용 효율 면에서 추적 가치가 없어지는지도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호송대가 공격당했다. 사방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함교 위에 홀로 선 그는,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하며...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였다.

선장을 깨울 시간이 없었다. 그는 플라스틱 뚜껑을 거칠게 열고 빨간 버튼을 강하게 내리쳤다. 온 함선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구명선을 향해 몸을 날렸고, 3 분 만에 소개가 완료되었다. 제이크가 함선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었다.

그는 30 초가 채 지나기 전 함선의 머리를 돌려 전투 지역을 벗어났다. 격렬한 전투 와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중에 살아남은 함선들의 항공 일지에 남은 각종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거주민 우주선이 하나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생존자가 있을 경우의 이야기였다. 제이크가 목격한 전황에 따르면 아마 없을 것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자유의 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다.

여기는 딱 적당했다.

완벽했다.

#

그는 부관에게 며칠 더 계산과 데이터 처리를 하게 하고, 그 동안 착륙선을 준비했다. 무엇이 필요할지 몰랐기에, 표준 착륙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또한 부관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짐을 꾸렸다. 무엇보다도 거주민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또한 큰 우주선을 태양의 중심으로 보내 자신의 흔적을 없애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오늘 내릴 필요는 없는 결정이었다. 게다가, 대박성이 부적당한 행성일 만한 이유가 발견될지도 몰랐다. 전문 용어로는 ‘의외’의 일이라고 한다.

그는 이미 주 대륙은 배제한 상태였다. 크고 굽주린 짐승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대륙의 서쪽에 몇 개의 섬이 줄지어 있었는데, 주 대륙에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서 격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멀었다. 그 중에서도 남동쪽 끝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이 완벽한 입지를 갖춘 듯했다. 섬은 삼각형 모양이었고, 꼭지점에 각각 자리한 가파른 화산 셋 중 둘은 휴화산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그 중 가장 컸는데 아직도 연기를 뿜고 있었고, 하늘 높이 솟아 꼭대기가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었다. 그 해빙수가 일 년 내내 용수를 공급했으며, 온천도 몇 군데 있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열대 해류가 수온을 따뜻하게 유지했고, 북풍이 서쪽 비탈로 밀어 올린 구름이 찬 공기와 만나 거의 매일 오후 부슬비를 내렸다.

그는 큰 섬을 까다롭게 조사했다. 아름다운 풍경이 벽의 전면을 덮은 화면에 펼쳐졌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섬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었다.

탐사정들이 섬의 비탈을 뒤덮은 풀밭, 호리호리한 과실수와 키 큰 활엽수, 양치식물과 풀과 덩굴로 무성한 숲을 비추었다. 반짝이는 폭포수가 복잡하게 얹힌 개울과 연못으로 흘러들었다. 고도와 바람 특성, 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섬에는 최소한 여섯 개의 생태계가 존재했다. 생태계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진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었다. 이는 생존력이 강한 잡종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추가 스캔으로 새와 곤충이 확인되었다. 제이크가 익히 아는 종류보다는 컸지만, 주 대륙을 어슬렁거리는 짐승들만큼 험악해 보이는 것은 없었다. 또한 각종 양서류와 소형 포유류가 있었고, 작은 멧돼지 같이 생긴 것도 있었다. 바다는 크고 작은 물고기로 가득했으며, 거대한 종도 몇 가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어차피 헤엄을 치기에는 파도가 너무 거칠었다. 북쪽 해안에서 부서지는 파도는 높이가 거의 60 미터에 달할 정도였다. 제이크는 겁을 먹었다. 육조보다 더 깊은 물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섬을 뭐라고 부를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팩스? 알로하? 샬롬? 안식도? 대도? 어느 것도 적당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두를 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섬이 그에게 이름을 알려 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급히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러기엔 너무 오래 계획했고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그는 주 대륙을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했다. 길쭉한 대륙의 서쪽 해안에 있으며 빼죽빼죽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석호를 조사했다. 그리고, 동물의 이동 경로를 벗어난 북쪽 고원에 있는 쉼표 모양의 호수를 조사했다. 심지어는 너무 황량해서 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을 듯한, 폭풍에 휩쓸린 남반구의 절벽까지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끝에는 항상 그 매력적인 섬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언젠가는 본토를 탐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섬이 안전하고 좋아 보였다.

그러나 착륙선에 짐을 모두 싣고 섬 서쪽 비탈의 좌표를 입력한 후에도, 제이크는 망설였다. 그는 함교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둘러보고, 한 번 더 스캔을 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한 번 더 데이터를 훑고, 한 번 더 망설임 이유를 찾아 보았다.

그는 일주일이 넘게 사령부 의자에 앉아서, 자신과, 또 부관과 실랑이를 하고 카라크 샌드위치를 먹고 커피를 몇 잔이고 마시고 입술을 오므리고 눈썹을 찌푸리고 우거지상을 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부와 장단을 따져 보았지만, 결국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이 섬은 목가적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 앉아서 걱정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순간 배를 돌릴까도 생각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있다. 함선이 파괴될까 봐 호송대에서 이탈했다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그걸로는, 왜 소개를 명령했는지, 삭제할 수도 없는 항공 일지에 왜 이 행성에 대한 길고 자세한 탐사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기야, 여기 도착한 다음에 거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성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 아마 안 믿을 것이다.

아니다. 그는 이 길을 택한 것이다. 커다랗고 빨간 경보 버튼을 내리친 순간에. 군사재판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심하면 총살형이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봤자 얻을 것이 없음을 마침내 깨달은 그는, 자괴감에 빠져 소리 내 말했다.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제이크. 엉덩이를 떼고 출발하라고.”

꼭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이번 발사 가능 시간대는 지나고 있었지만, 두 시간 후면 또 열릴 것이고, 그 후로도 두 시간마다 열릴 것이었다. 하지만 함선에서는 더 할 일이 없었다. 상황을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음 단계는 행동이다. 그는 일곱 해가 넘는 세월 동안 탈영을 계획했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이다. 또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일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남은 음식을 버리고 함선을 대기 상태로 전환한 후, 발사 구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 그가 이 함선이 태운 마지막 생명체가 될 것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이크 님.” 부관이 말했다. “저는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 함선을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는 착륙선을 타고 조심스레 우주선을 떠났다. 제이크는 모니터를 하나 켜고, 거대한 함선이 점점 멀어져 반짝이는 점이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그를 괴롭혔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뭘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또, 혹시 필요한 게 생긴다면 거주민 우주선에 신호를 보내 함선에 탑재된 화물 낙하기를 떨어뜨리라고 하면 된다.

아직 소형 함선을 돌려 거주민 우주선으로 돌아갈 시간은 있었다. 꼭 여기 착륙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화물을 가득 실은 함선이 예기치 않게 착륙하는 것을 반길 변방 개척지는 숏하게 많았다. 그는 영웅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군함이 도착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착민이 상금을 노리고 그를 고발하면 끝이다. 역시, 그냥 사라지는 편이 나았다.

그는 그 순간을 보내고 함선을 착륙 경로에 진입시켰다. 조금 후, 상층대기의 공기 가닥이 선체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곧 선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선체를 안정시키고, 항로 변경이 필요할 때만 추진기를 켜면서 점점 짙어지는 대기를 이용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쪽에서 섬에 다가가면서 빠르게 함선을 강하시키다가, 반짝이는 녹색의 해수면 바로 위에서 강하를 멈췄다. 물속을 헤엄치는 커다란 검은 형상이 보일 정도였다. 그는 해안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착륙선의 속도를 줄였다.

해안의 모래사장은 분홍색의 진줏빛 점이 드문드문 섞인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래사장은 비탈진 넓은 풀밭으로 이어졌고, 풀밭은 저 멀리 보이는 화산까지 뻗어 있었다. 섬 전체가 화산암이었고, 표토가 너무 얇아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도 있었다. 키 큰 풀과 덩불, 양치식물만 자랄 수 있었다.

제이크는 마침내 섬의 서쪽이 내려다보이는 고원에 함선을 착륙시켰다. 그런 다음 함선이 공기의 표본을 채취하고 여과한 후 독성 물질과 악성 세균, 진균, 바이러스, 프라이온을 찾는 동안 화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시스템이 안전복을 입지 않고 착륙선에서 나가도 되는지 판정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 안전복은 최고 6 등급의 전염성 미생물 차단을 보증했지만,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보증은 쓸모가 없었다. 역시 선내 연구실에서 예방접종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는 지상 및 공중 탐사정을 내보내 섬을 탐사하게 했다. 상세한 지형 지도가 완성될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작업에는 한두 주가 더 걸릴 수도 있었다.

후보 목록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었다. 그중에는 척박한 행성도 있었다. 대기 조건이 좋지 않아 숨 쉬기가 힘든 행성, 행성 개조가 끝나지 않아 생명체라곤 조류, 진균류, 지의류가 전부인 행성 등이었다. 탐사 결과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행성도 있었지만, 제이크는 누가, 또는 무엇이 그곳에 정착할지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이 행성은 어느 정도 고독을 보장했다. 지루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음악이 있었고 디지털 책도 있었으며 홀로그램 동영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역을 파악하려고 건설로봇을 타고 착륙 지점 근처를 걷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탐사 기지 구획을 나타내는 표지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 다음 건설로봇을 운전해서 지면을 정리한 후 카메라와 조명, 각종 감지기, 보안 경계벽에, 자동 포탑 두어 대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이었다. 자동 포탑까지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표준 절차였다. 전갈이나 모기보다 큰 것을 처치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꼼꼼하게 대비를 했다. 대충 넘어가기에는 군인 특유의 망상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셋째 날, 그는 착륙선을 넣어 둘 격납고를 건설했다. 건설로봇을 타고 자재를 내린 후, 조립식 벽을 용접하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다. 착륙선을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그 다음 카메라와 자동 포탑이 주위를 감시하게 하고 여덟 시간 동안 잠을 잔다.

그는 한밤중에 깼다.

그는 알몸에 반바지만 걸친 채 적외선 조준경이 부착된 토론티 SR-8 산탄총을 들고 밖으로 걸어나가 어둠 속을 주시했다. 전조등의 어슴푸레한 푸른 빛은 주변의 밀림만을 남색과 검정색으로 비출 뿐이었다. 머리 위에서는 별들이 밝게 빛났고, 행성의 세 달 중 가장 큰 달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무기를 들어 올린 후, 조준경에 눈을 대고 조심스레 돌면서 열원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소리를 낸 것이 뭐였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조용했다.

‘무엇’인가가 낸 일종의 비명이었다... 새일까? 잠시 수면으로 올라온 바닷속의 무엇일까? 아니면 그 돼지처럼 생긴 동물일까? 그 동물들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있는 건 아닐까? 논리적으로는 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논리란 주어진 사실에 의해 제한되고, 주어진 사실은 그것을 연구하도록 주어진 기술에 의해 제한되지만, 제이크에게 주어진 기술은 제한되어 있었다. 생소한 신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생소한 세상은 생소하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생소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생소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안 화면 앞에 앉아서 밤중에 녹음된 소리를 재생했다. 대부분은 파도와 바람, 주위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어우러진 무해한 배경음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하지만 듣기는 들었다. 그는 알았다. 아니, 확신했다.

그는 한참을 화면 앞에 앉아서 섬의 지형을 살폈다. 그리고 탐사정 세대를 내보내 주위를 순찰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떨었다.

그가 오늘 밤 들은 비명은, 의식이 갑자기 끊어질 때 목구멍에서 나는 듯한 낮은 울부짖음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머릿속의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은 익히 알고 있었다. 전에도 느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 비명과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소리였다.

구역 저편에 이상한 사이오닉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더 꺼림칙한 이야기도 있었으니, 징집되어 사이오닉 전사로 양성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유령 말이다. 제이크는 유령을 만난 적도 없었고 직접 본 적도 없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이크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사이오닉 폭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사고는 일급비밀이었던 이송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다.

그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로, 그때 그는 겨우 상병이었다. 이름 없는 거대한 검은 함선에 급히 선원이 필요했고, 그는 비밀 정보 취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임무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타소니스의 달인 우르사에 있는 유령 사관학교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보호막이 쳐진 선실에 텔레파시 능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내 자기 숙소에 머물면서 남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고, 아무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텔레파시 비명이 온 함선을 뒤흔들자 선원들은 픽픽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서 있던 자리에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토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자기도 모르게 대소변을 지렸다. 그녀를 호위하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호송원은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포커 판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뛰어나갔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사이오닉 차단기라는 값비싼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그 끔찍한 비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 우주선의 선원들에게는 그런 보호 장비가 없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또 고통스럽게 의식을 되찾았다. 사이오닉 폭발로 인해, 그들은 멍하니 얼이 빠진 채 나약하게 벌벌 떨고 있었다.

그 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호송원이 유령 후보에게 꾸준히 진정제를 투여했다. 선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텔레파시 능력자가 이제 겨우 열 살 정도이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자기 능력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슬쩍 흘렸다.

하지만 이 비명은 함선에 있던 모든 선원의 영혼에 흔적을 남겼다. 폭발의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힘은 그들에게 각인과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미세한 사이오닉 에너지의 파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제이크는 그 능력자의 원래 트라우마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그녀의 기억을 쪼먹고 있었는지, 어떤 공포가 되살아나 악몽을 불러왔는지는 몰랐지만, 웬지 직접 본 적도 없는 저글링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끔찍한 사이오닉 사고가 발생한 후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소하고 불쾌한 감정들이 지리멸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마치 자신이 공격당하고 침범당하기라도 한 듯이. 새로운 기억, 자기 것이 아닌 거짓 기억이 두개골에 낙인된 것만 같았다. 생각 없이 으르렁거리고 짹짹거리는 벌레로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의 기분에 대한 기억이었다.

함선의 의사는 망가진 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사고의 여파로 텔레파시 잡음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심각했다. 함선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선원 셋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이크는 운이 나빴던 사람 중 하나였다. 살아남은 것이다. 갈가리 찢긴 채 치유받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부상자 중 하나였다. 정서적으로 붕괴된 그는, 주위 사람들의 정신 잡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렷한 소리는 아니었고, 주위 사람들의 반쪽짜리 감정의 단편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달가닥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공포, 비애, 분노, 슬픔, 증오는 물론, 욕정과 욕망, 묘하고 어두운 감정도 빈번히 섞여 있었다. 잡음은 느린 파도와도 같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 가장 심해지기도 했지만, 결코 견딜 만할 정도로 낮아지지는 않았다.

제이크가 탈영을 택한 것은 그때였다. 다시금 고요를 즐길 수 있는 곳, 다른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이 비명 소리는...? 인간의 소리는 아니었다. 제이크는 그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다른 뭔가의 소리였다. 동물일 수도, 곤충일 수도 있었고, 분별없는 존재일 수도, 신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다. 그 무엇의 소리든지, 너무나 강렬했다.

다음 날 아침, 주황색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제이크는 잠에서 깨어 준비를 마쳤다. 가벼운 전투복을 입고, 개조한 AGR-14 를 들고, 헬멧을 대충 손봐서 전면의 보호창에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해 두었다. 이곳까지 오는 데 걸린 그 오랜 시간을, 그는 불만스러운 장비를 모조리 개조하고 변경하면서 보냈던 것이다. 거의 모든 장비가 그에 속했다. 그는 시체매에 올라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중얼거렸다. “좋아. 시작해 볼까.”

시체매는 정찰과 순찰에 안성맞춤이었다. 속도와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경장갑의 일인승 공중 부양 차량이다. 거주지용 모델은 해발 1킬로미터 높이까지 뜰 수 있었고, 속도를 시속 370킬로미터까지 낼 수 있었다. 제이크는 착륙선에 시체매 세 대와 예비 부품을 실어 두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그날 밤 비명을 질렀던 그 무엇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옛새 동안 섬을 수색했다. 옛새 밤 동안 하늘을 순찰하고, 푸른 빛을 손가락 삼아 수풀 속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일곱째 날 그는 휴식을 취했다. 시체매를 격납고 옆에 세우면서, 덩굴식물이 이미 지붕 위로 뻗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다. 몇 달 후면 덩굴이 자라서 굵고 검은 줄기와 두껍고 검푸른 잎의 용단으로 지붕을 뒤덮을 것이다. 혹시라도 옛보는 자가 있다면 훌륭한 위장이 되어 줄 것이다.

월요일에 제이크는 시체매의 연료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날아올랐다. 다시 섬의 북쪽 지역으로 가서 가장 높은 화산의 비탈을 수색할 작정이었다. 화산은 거대한 냉각탑처럼 수평선에서 솟아 있었다. 이곳은 90%의 중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높게 자랐다. 식각이 더 컸기 때문에 모래 언덕과 모래 파도가 더 가팔랐다. 산도 더 높고 험준했다. 화산의 봉우리는 첨탑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비탈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곤충과 동물도 더 컸다. 낮의 뜨거운 햇볕 덕분에 변온동물도 더 빨리 체열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었다. 거기 더해 높은 산소 농도도 동물의 크기가 커지는데 한 몫 했다. 축구공만 한 것들까지는 괜찮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덩치가 큰 것들이었다. 축구장만 한 것들도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이 제도의 섬들에 자라는 초목으로는, 본토를 돌아다니는 거대 초식동물을 한 무리도 먹이기 힘들 것이었다.

또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은 험하고 울퉁불퉁했다. 이주는커녕 가벼운 탐사를 하기도 힘들었다. 시체매가 없었다면 미처 가지 못했을 곳도 많았다. 미처 보지 못했을 구역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지형지물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휴화산의 분화구 두 개는 용암굴, 즉 용암류로 인해 형성된 천연 동굴로 가득했다. 용암이 아래로 흘러내릴 때 표면이 굳어지면서, 검은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이 생긴 것이다. 그 이후의 화산 분출로 용암굴 위에 두꺼운 지붕이 생겼다. 용암굴은 대부분 착륙선이 들어갈 만큼 넓었다. 제이크가 용암굴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착륙 지점에 격납고를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용암굴이 공중엄호 측면에서도 낮고, 깊이가 깊다면 방어용 벙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용암굴들을 보다 철저히 탐사해야 하겠지만, 사이오닉 비명의 근원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때때로, 제이크는 시체매를 세우고 탐사정을 내보냈다. 탐사정들은 조용히, 또 꾸준히 주위를 탐사하면서 영상 및 음향 데이터를 기지로 전송했다. 개중에는 적극적으로 탐사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휴면 상태에 있다가 특이 사항이 있을 때만 깨어나는 것도 있었다. 이 섬에 쉽게 탐지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이크는 찾아낼 작정이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그날 오후, 북쪽을 바라보던 제이크는 수평선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바다와 하늘 사이에서 간간히 번개가 번쩍었다.

“Crap,” Jake said aloud. He’d forgotten one of the first rules of anything: don’t get so involved in what you’re doing that you forget what you’re doing. He’d forgotten to pay attention to his weather displays.

“망할.” 제이크가 내뱉었다. 만사의 첫 번째 규칙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뭘 하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규칙이다. 그는 날씨 정보를 주시하는 걸 깜빡한 것이다.

The danger was immediately apparent. The wide line of the squall was rushing toward him at incredible speed. Understandable. Everything on this world was larger than he'd imagined. This wasn't just a squall; it was a super-storm. There was no way he could make it back to camp before it hit. He'd have to find a closer shelter and wait it out.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다. 넓게 펼쳐진 폭풍이 엄청난 속도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알 만은 하다.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생각보다 크니까. 이건 그냥 폭풍이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었다. 태풍이 닥치기 전에 기지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가까운 피신처를 찾아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His first impulse was to head for the lee side of the volcano, but he realized almost immediately that he would be just as defenseless to the elements as the storm swept over.

문득 든 생각은 화산의 반대편 비탈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곳도 태풍엔 무방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No, there was only one possibility. He headed his vulture for the nearest lava tube. He'd been planning to explore some of the larger tunnels someday. He just hadn't realized that someday would be so immediate.

역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시체매를 돌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용암굴로 향했다. 어차피 언젠가는 큰 용암굴 몇 군데를 탐사할 계획이었다. 그 언젠가가 이렇게 금방 찾아올 줄 몰랐을 뿐.

The storm wasn't entirely unexpected. His data crunches had shown the planet was capable of extreme weather, but without any long-term studies of wind and weather patterns, he'd had no way of knowing how often the super-

storms would occur. This planet needed an ice age to cool it down. All that heat—the same heat that favored an oxygen-rich atmosphere and encouraged giant plants and animals—it also favored massive evaporation of water vapor from the surface of the ocean and horrific winds to hurl the resultant massive super-saturated clouds into any obstructing mountain. This wasn't just a super-storm; it was a perfect storm, a scouring hurricane of colossal proportions.

태풍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데이터 처리 결과 이 행성이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바람과 날씨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 행성은 빙하기를 거치며 식어야 한다. 높은 산소 농도와 거대한 동식물을 낳은 열기가 바닷물을 대량으로 증발시킨다. 그로 인해 거대한 비구름이 생기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구름을 산으로 날려 보냈다. 이것은 그냥 태풍도 아니고, 무엇이든 쓸어 버리는 무지막지한 규모의 초강력 태풍이었다.

By the time he reached the lava tube, the wind was already rising and causing the vulture to buck almost uncontrollably. The entrance to the cave was a hole in a sheer vertical cliff, partially blocked by hanging foliage. Already the sky overhead was darkening, the first strikes of lightning were flashing, and a spattering of heavy drops was pelting the canopy of the craft. Jake held firmly onto his controls, easing the vulture through the vines and into the tunnel. As soon as he was out of the wind, he could let his forward momentum carry him up the tube. He needed only tiny nudges from the thrusters. His headlights probed the gloom, but revealed only burnished walls of obsidian. Myriad reflections glittered and sparkled from the dark volcanic glass.

그가 용암굴에 이르렀을 때는, 바람이 이미 강해지기 시작해서 시체매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동굴 입구는 깎아지른 절벽에 난 구멍으로, 늘어진 덩굴로 일부 가려 있었다. 이미 머리

위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으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거리며 시체매의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제이크는 조종간을 단단히 붙잡고, 덩굴 사이로 시체매를 몰아 굴 안으로 들어갔다. 일단 바람이 부는 곳을 벗어나자, 전방 추진력을 이용해 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가끔씩 추진기로 힘을 실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의 전조등이 암흑을 헤집었지만, 반들반들한 흑요석 벽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상이 검고 매끈한 화산암 표면에서 반짝반짝 무수한 빛이 났다.

Fifty meters in, Jake allowed the craft to settle to the floor of the tunnel. This should be deep enough into the tunnel. If not, he could always go deeper into the mountain. He had no idea how far this cave extended, but the sensors on his vulture revealed at least another hundred meters, possibly more. Beyond that, the display was indeterminate.

50 미터쯤 들어가서, 제이크는 시체매를 동굴 바닥에 세웠다. 그 정도면 충분히 들어온 것 같았다. 만약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동굴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체매에 장착된 감지기에는 최소한 100 미터가 더 나타나 있었다. 그 너머부터는 화면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다.

Jake climbed down from the vulture. He flipped open the faceplate of his helmet and took a deep breath. Already the air smelled wet. Even this deep into the lava tube, there was a noticeable draft coming from the entrance. The opening glowed as a bright circle of light, already darkening, occasionally flickering from unseen lightning strikes. He approached just close enough to feel the wet spray of the storm. It was already hammering in with powerful horizontal surges that left the walls of the tunnel dripping. The water came in faster than it could drain. Jake wondered if he should move the vulture farther up the tube, but as he walked back up the slope, it was clear that the water wasn't reaching up this far. He was safely beyond the worst forces of the storm.

제이크는 시체매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헬멧의 앞 유리를 뒤로 젖히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벌써부터 공기에서 축축한 냄새가 났다. 용암굴 속으로 이만큼 들어왔는데도, 밖에서 흘러드는 바람이 느껴졌다. 밝은 빛을 발하는 원 같았던 동굴 입구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번갯불 때문에 이따금씩 깜박거렸다. 그는 폭풍이 흩뿌리는 빗물의 물기가 느껴질 때까지 입구로 다가가 보았다. 빗물이 이미 강하게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해서 동굴 벽에서 물이 똑똑 듣고 있었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보다 빨랐다. 제이크는 시체매를 끌고 동굴 안쪽으로 올라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비탈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빗물이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았다. 폭풍의 가장 무서운 힘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난 것이었다.

“망할.” 제이크는 다시 내뱉었다. “이런 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는 시체매의 짐칸 뚜껑을 열고 물자를 살펴보았다. 사흘 정도, 아끼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이 있었다. 천막은 필요 없겠지만, 딱딱한 동굴 바닥보다는 침낭이 편할 것이었다. 조심한다면 구급 상자는 필요 없을 것이었다. 그는 무기 보관함을 살폈다. 모든 무기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충전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기가 필요할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 필요할 일이 없기를 바랐다.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지.” 제이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구멍 벌레가 있으니까. 그놈 한 마리면 하루를 망치고도 남지.”

그는 AGR-14 를 가져갈까 생각했다. 가벼운 무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효과적인 무기였다. 자기 가속을 이용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초음속으로 총알을 발사한다. 제이크는 소이탄을 가장 좋아했다. “죽는 것보단 안전한 게

낮지.”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AGR-14 와 여분의 탄띠 두 개를 챙겼다. 잠시 생각한 후에 소이수류탄도 한 줄 챙겼다. 혹시 모르니까.

그는 전등을 켜고 전원을 확인했다. 헬멧 보호창에 설치한 디스플레이를 재차 확인했다. 화면으로는 예비 전원, 시스템 정보, 생체 정보, 그리고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할 경우에 대비한 시체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녹색으로 빛났다. 동굴을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몰아치는 태풍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굴 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착각이라면 고생스럽게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용암굴은 꽤 경사져 있었지만,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다. 중력이 표준 중력의 90%인 만큼 용암이 더 천천히 흐를 것 같았지만, 화산이 더 가파르다 보니 용암은 오히려 더 빨리 흘렀다. 일차 스캔으로 용암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분출하는 화산이 솟아오르면서 용암굴이 층층이 형성되었고, 스파게티 가닥처럼 휘고 구부러진 곳도 있었다. 이 용암굴의 형성 상태를 보면, 일군의 지질학자들이 몇 세대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발소리가 반들반들한 동굴 벽에 부딪히며 울렸다. 마치 샤워실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동굴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를 모습을 보기 전에 소리부터 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제이크는 가끔씩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뒤 먼 곳에서 태풍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굴 입구의 어슴푸레한 빛은 흐릿해지다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천둥소리가 아직도 가끔씩 굴속에 울려 퍼지기는 했지만, 번갯불은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번개가 심하게 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외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적어도 귀로는. 전과 마찬가지로, 배 속에서부터 불쾌한 울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걱정이나 허기와의도 같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이름 모를 감각이었다.

그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는 전등으로 발밑을 비추었다.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작은 개울도 있었다. 이 화산은 안쪽부터 서서히 침식되고 있는 균열로 가득한 듯하다. 폭풍이 수천 년에 걸쳐 깎아낸 배수로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이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 화산 안에라면 공장, 병영, 무기고 등의 군사 시설을 통째로 숨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생각에 몸서리쳤다. 끊임없이 폭력을 준비하는 맥 빠지는 삶, 그것에서 이제 막 탈출한 참이었기 때문이었다.

동굴이 더 가팔라졌다. 그는 가끔씩 멈춰서 숨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리고 발밑도 더 조심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발에 밟힌 채 바닥에 굽혀 끼익하는 쇠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그는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금색으로, 금보다 더 밝은 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우면서도 부자연스러운 빛깔이었다. 금속 같으면서도 금속은 아닌 무언가의 파편이었다.

처음에는 주머니칼이나 검의 날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우아하게 굽어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그것을 발끝으로 밀어 보았다.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크게 내쉬며 진심으로 골치가 아프다는 듯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였다.

그는 머뭇거리며 그것을 찰러 보았다. 누군가 작동시켜 주기만을 기다리는 일종의 기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눈물방울에서 꼬리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모양이었다.

“망할,” 제이크가 말했다. “망할, 두 번 망할.”

그는 솟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그 물체를 살폈다. 제발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밖의 폭풍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도망쳤을 것이다. 탐사 기지로 줄행랑을 쳐서 착륙선에 장비를 몽땅 싣고 거주민 우주선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미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섬, 이 행성, 이 행성계를 떠나야만 할 것이다.

제이크는 이 물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전장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이 금속 비스듬한 것이었다. 똑같이 진줏빛 노란색으로 빛났다. 똑같이 윤이 났다. 녹슨 곳도 없고, 팬 곳도 없고, 긁히거나 그슬린 곳도 없었다. 휘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린 무언가의 파편일 뿐이었다.

프로토스 금속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제이크는 힘겹게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열까지 췌다. 스물까지. 백팔십까지. 너무 성급한 결론인지도 몰랐다.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몰랐다. 프로토스 금속은 부식되거나 침식되지 않는다. 파편은 이곳에 수십 년이나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나 있었을지도 모른다. 프로토스가 왔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제이크는 반짝이는 파편을 집어 들고, 장갑을 낀 손으로 이리저리 돌리며 살펴보았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다. 전쟁 박물관에 있던 파편들처럼 구부러지고 부서져서 이곳에 날아온 것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파편은 한쪽 면에 깊이 굽힌 자국이 있다는 점뿐이었다. 마치 이빨이나 발톱에 굽힌 것 같았다.

“세 번 망할.” 제이크가 내뱉었다. “세 번이 맞지. 난 혼자가 아니야. 여긴 프로토스가 있었어. 게다가 프로토스와 싸워서 이긴 녀석, 그 녀석까지 있어.”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그는 금속 비스듬한 파편을 손에 든 채 몸을 폈다. 계속 화산 안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시체매가 있는 곳으로 후퇴해서 태풍을 헤쳐 나아갈 수도 있었다. 아니면 우유부단으로 마비된 채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 마침내 행성 표면에 착륙하기로 결단을 내리기 전 일주일 동안이나 그를 거주민 우주선 조종석에 앉혀 놓았던, 그 우유부단이다.

다시 내려간다면, 산속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다. 한밤중의 비명이 무엇이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다. 계속 올라간다면... 이곳에 머물든 도망치든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상대를 만나서 살아남는다면 말이다.

“망할.” 제이크가 말했다.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망할’이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았다.

다음 몇 미터는 가팔랐지만,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더니 넓고 높은 방이 나타났다. 전등이 푸른 빛줄기로 어둠 속을 더듬었다. 바닥은 돌덩이로 엉망진창이었고 천장은 반들반들한 반구였지만, 그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곳에서 전투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큰 전투가. 동굴 벽은 그슬려 있었고 바닥은 금속 비스듬한 파편 천지였다. 대부분 금빛이었고 일부는 은빛이었다. 제이크가 프로토스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은빛 파편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적자라는 것의 다리 파편인 것 같았다. 밝은 노란색 조각은, 불멸자라는 대형 전쟁 병기의 유해인 것 같았다.

프로토스 전쟁 병기의 모습에 흥미를, 심지어는 경외감을 느껴야 마땅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 금속 대학살의 광경에 그는 불안과 걱정이 들었다. 그 광경은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것이, 중장갑을 두른 프로토스를 찢어발길 만큼 험악한 것이 존재함을 시사했던, 아니 입증했던 것이다.

“망할.” 제이크가 말했다. “그저 망할, 망할, 망할.” 헬멧에 나타난 데이터에 따르면, 제이크가 착륙 후에 입 밖에 낸 모든 단어 중에 이제 ‘망할’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였다.

그는 허리띠에 매어 두었던 제어장치를 풀어 내고, 커다란 방에 초소형 정찰기를 한 무리 들여보냈다.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작은 정찰기는 우모자 기술로서, 제이크가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거라 생각하고 암시장에서 큰돈을 주고 구한 것이었다. 정찰기들은 즉시, 서서히 공중을 선회하면서 촬영하고 측정하고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때 밝은 푸른빛의 광선이 동굴 반대쪽에서 날아오더니, 초소형 정찰기를 차례대로 맞혀 눈부신 섬광을 발하며 분해해 버렸다.

제이크는 그래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금 초소형 정찰기를 모조리 재로 만든 무언가가 그도 노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그의 배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흘러드는 동안에도 이미,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은 그 무언가가 그를 살려 두려 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앞으로 발을 뻗었다. 도망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었다.

동굴 건너편, 방의 반대편에서는 다른 용암굴이 거대한 공동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키가 큰 무엇, 인간이 아닌 무엇이었다.

그 순간 제이크는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동시에 얼마나 운이 나쁜지 깨달았다. 그는 이 구역에서 프로토스와 얼굴을 맞댄 몇 안 되는 인간 중 하나가 된 것이었다. 몇이 안 되는 것은, 프로토스와 얼굴을 맞댄 자는 대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어,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머뭇머뭇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

래사타르는 자기 앞의 생물을 찬찬히 살폈다. 그는 그것이 이 섬에 도착한 날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제 이 동굴에서, 마침내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인간이었다. 원시적인 기술로 무장한 인간. 그것은 자기가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원초적인 충동이라는 핵에 사유라는 허울을 두르고 있다. 그 충동은 대부분 공포다. 그것은 사유를 가장하고 심지어 진정한 사유를 염원하기도 하는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실은 그저 어설프게 얹힌 허기, 공포, 분노와, 모호하고 불쾌한 욕망의 힘으로 움직이는 유기적 기계일 뿐이다.

그것은 친밀감을 원하지만 동족과의 관계를 두려워한다. 그것은 지식을 원하지만 발견을 두려워한다. 변화를 원하지만 행동을 두려워한다. 평화를 원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각성을 원하고 흐릿하게만 보이는 빛을 갈구하지만, 스스로를 감정이라는 우리에 가두는 동물적인 존재 양상을 포기하기를 두려워한다. 그것은 행동하기보다는 반응한다.

그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낯지는 않다.

인간이 차원 이동 기술을 이룩한 것은, 천성적인 지능의 증거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얼마나 파악하기 쉬운지를 보여 주는 실증이다. 인간이라는 종은 아직 진화를 마치지 않았고, 결코 마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보다 높은 존재가 될 기회를 손에 넣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생물들은 그 순전한 열정 때문에 무서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들은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맹렬하게 창조한다. 그들은 무분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암흑 기사에게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질문이었다.

어떤 생물과 우주를 공유한다면, 그 생물은 동료이거나 골칫거리다. 중간은 없다. 그 관계가 서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영원한 전쟁과 파괴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삶은 필연적이고 자원은 유한하다. 나머지는 훈련생을 위한 연습 문제이다.

초소형 정찰기를 파괴한 후부터 그 생물이 손을 들어 인사를 할 때까지의 짧은 순간 동안, 래사타르는 수많은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의 호기심이 모든 안을 압도했다.

인간은 전에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그 대부분이 폭력적인 경험이었지만, 작은 세상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그는 이 미완성 종족의 각성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정신을 훈련할 수 있을까? 이 동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스스로 창출한 기술에 대한 깊은 책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본토의 거대한 초식동물과 같이, 진화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먹히는 생태에 얽매어 있을 뿐인가?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 생물은...

래사타르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물은 동족에게서 떨어져 있기를 택했다. 인간들은 자주 그랬고, 뚜렷한 이유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사리에 닿지 않았다. 유전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었다. 부족, 무리,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단일 개체의 생존 능력은 대폭 감소한다. 기술의 단단한 껍데기조차도 이 우주의 원초적인 힘으로부터는 몸을 완전히 지켜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개체가 짝 없이, 즉 번식 능력 없이 이동한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무익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진화적 가치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존재하기는 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행동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종에서 이미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구성원이 탐험과 발견에 전념하면, 보다 큰 유전자 풀의 생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종 안에서 위대한 사유가 발달하고, 진정 깨어 있는 정신이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심지어는, 이족 보행이나 도구 사용과 같은 심오한 진화적 계기가 될지도 몰랐다.

인류의 미래는 프로토스 장로들이 때때로 논의하는 사안이었다. 인간은 가능성의 첨점에 고착된, 묘하고 특이한 종이었다. 격렬한 생물학적 충동과 진정한 각성의 가능성 사이에 갇힌 인간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의문이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은 흥미롭기는 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었다. 적어도 저그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개별 인간과의 접촉은 커져 가는 사유 체계에 한 조각을 보탬 것이었다.

래사타르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지키는 비밀의 수호자였으며, 자신의 임무를 성스러운 책임으로서, 나아가 정체성으로서 받아들였다. 래사타르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프로토스 전통의 살아 있는 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저 수호자인 것으로는 부족했다. 살아 있는 화신이 되어야 했다. 과거의 힘과 능력에 접근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했다.

그는 고대의 수수께끼와 비밀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의 프로토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 생명은 변하는 것이다. 최초의 프로토스는 그 사실을 알았다.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했던 것이다.

생명은 진화한다. 생명은 변화한다. 생명은 스스로를 시험하며 주위의 상황에 적응한다. 보다 높은 존재에게 이 과정은 아름답고 잔인하며 강력했다. 수천 년을 단위로 생각하는 보다 높은 존재에게 진화란 도구였고, 프로토스 종의 첫 구성원들은 이 도구를 능란하게 사용했다.

래사타르는 고대의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오늘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자면, 인간을 진정한 각성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이 저그와의 전쟁에서 유용한 동료가 될 것인가?

그것은 흥미로운 의문이었으나, 프로토스 지배층은 그에 대해 탐구하기는커녕 오래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었다. 인간은 걸핏하면 무절제한 감정과 폭력성을 표출했다. 진정한 각성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의 핵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인류를 끌어올리면 매우 위험한 종이 되어 프로토스에게 위협이 될지도 몰랐다. 그 위험성이 너무 컸다.

또한... 그것은 그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혼자서 손댈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는 수수께끼의 주인이 아니라 수호자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례적인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가 중요한 유물인 젤나가 유물을 찾고 있었을 때였다. 그는 한 인간의 집 근처에서 유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아이와 마주쳤다. 그 생물은 놀라운 천진함과 호기심을 보였다. 이는 프로토스 역사의 적대적인 접촉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미성숙한 인간에게 역량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어떨까?

래사타르는 인간이 아직 각성은커녕 각성의 그림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각의 정도로 보면 인간은 곤충보다 겨우

나은 정도였다. 그들은 존재의 물질성에 예속된 채 두뇌의 화학 작용에 지배당하고 호르몬의 폭풍에 휘둘리는 존재로, 태어날 때 직면하게 되는 환경의 희생자였다. 그들은 자극에 현혹되며, 반응의 동물로서, 즉 단순하고 뻔한 유기적 기계로서 기능했다. 그들에게 이성이 생긴 것은 진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불과했으며, 진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 어린 여자와 그 아비를 만난 후 그는 당혹감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폭력적인 존재였던 남자가 사랑과 연민이 넘치는 보호자로 변한 것이었다.

연민과 공감은 타인의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자기 밖에도 의식체가 존재함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각성의 핵심 요소였다. 작은 첫 단계지만, 가장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었다. 인간에게서 그 잠재력이 보이자 래사타르는 연구를 하고 싶어졌다. 또 다른 의문도 생겼다. 그 능력은 왜 인간이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것인가? 왜 능력이 인간과 함께 성숙하지 않는가? 그것이 인간이 진정한 각성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인가?

래사타르는 이 의문을 종자들에게 숙제로 주고, 젤나가 유물의 성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없었고, 그것을 다시 작동시키는 데는 큰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가볍게 손을 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종자들에게 자각과 각성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라고 했다. *연민, 타인의 자아를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 고찰해라. 경험 전달 기능으로서의 자각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어떻게 기억이 역사를 낳고 역사가 정체성을 낳으며 정체성이 생존 본능을 낳는지 고찰해라.*

그는 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떤 종을 끌어올리면 그 결과로 어떤 의식이 생기겠느냐?*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종자들에게 그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일러두었다. 수호자의 직무는 보호하는 것이지 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연구는 직무의 일부였지만, 직접적인 실험은 직무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종자들은 그에게 실험도 연구의 일부가 아니냐고 물었다. 실험은 전혀 다른 문제였고, 래사타르가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였다. 당시에는 그 문제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보다는 젤나가 유물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종자들에게 각성의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찰하라는 한 가지 지시만 남기고 떠났다. 그 문제를 탐구하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다. 어쩌면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젤나가 유물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척박한 소행성으로 가서 유물의 역사와 성질에 대해, 그리고 고대 종족이 왜 일부러 유물을 숨겼는지에 대해 조용하고 집요하게, 또 정연하게 고찰했다. 마침내 깨달았다 싶었을 때 그는 유물을 작동시켰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졌다.

유물의 정체 때문이 아니라 유물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젤나가 유물이 발휘하는 힘 때문만이 아니라, 그 힘에 내포된 의미 때문이었다. 그는 알아낸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니, 밝혀야 할까?

이것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른 프로토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자신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난제에 봉착한 것이었다. 떠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종자들에게 해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돌아갔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젤나가 유물의 힘을 사용했다.

유물로 그들의 사이오닉 흔적을 추적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그는 괴로움에 빠졌다. 그 다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슬픔에 잠겼다.

그가 만약 공황에 빠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랬을 것이었다.

종자들은 그가 던진 질문에 광적으로 집착한 것이었다. 종의 유전적 구조를 변경하여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저그를 덜 위험한 존재로 개조할 수도 있을까?

프로토스 사유의 집합체로부터 격리되고 프로토스 지배층의 눈에서 벗어난 이곳에서, 래사타르의 종자들은 조용하고 정연하게 저그의 생물학적 구조로 실험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효용을 보고하기 위해 이론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에는 오만한 금지도 있었다. 그들은 이 시도가 성공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저그에 대한 대화뿐만 아니라 전투의 방법론이 변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종자들은 야망에 이끌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살아남기만 했다면 그랬겠지.

그 인간의 존재가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래사타르의 종자들이 이 세상을 택한 것은 그 인간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코프룰루 구역의 변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들킬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그 인간이 그 실험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더욱 알궂었다.

우연일 것이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종자들이 실시한 실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면, 한 명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운한 우연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해를 끼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래사타르는 나머지 생각을 미완으로 남겨야 했다. 이 상황의 모든 가능성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직은 아니었다. 미지의 요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젤나가 유물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 모든 사유의 과정이, 내용뿐만 아니라 맥락까지, 초소형 정찰기를 없애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인간이 손을 들고 “어, 안녕하시오.”라고 말했을 때, 래사타르는 이미 그것을 살려 두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모든 프로토스가 그렇듯이, 그는 무의미하게 생명을 멸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그건 낭비였다. 인간을 살려 두면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고, 죽이면 기회는 사라질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것 참, 이상하네.”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달리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헬멧의 화면을 확인했다.

표시는 모두 녹색이었지만, 바탕이 아주 약간 지직거렸다. 잡음이었다. 뭔가가 있었다. 그냥 배경 방사능일지도 모른다.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본 적이 있었다. 어쩌면 시스템 자체의 잔류 잡음일 수도 있었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이크는 이 세상을 아직 충분히 겪어 보지 않았고, 아직 정서적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다. 아직은 뜰 수 있었다. 뜨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뭔가가 저 추적자들과 불멸자들을 찢어발겼다. 프로토스를 공격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종족... 그는 하나밖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는 그곳을 떠나 해야 했다. 놈들은 자기 종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 반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만약... 놈들이 있었지만 프로토스가 이미 없애 버렸다면? 아니다,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방 안에 흩어져 있던 파편은 프로토스의 장갑 조각이었다. 공격자들의 유해는 보이지 않았다. 프로토스를 찢어발긴 게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들을 예고 없이 덮쳐서 완전히 압도한 것이었다. 방의 벽과 바닥, 일부 금속 파편에 굽힌 자국이 있었지만, 무슨 자국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방은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폭발로 생긴 것일까? 그것도 알 수 없었다. 그는 프로토스 기술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른 놈들은? 놈들은 제이크에게 더욱 수수께끼였다.

아니다. 지금은 더 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왜 아직 살아 있는 것일까?

그 음흉해 보이는 프로토스가 그를 죽이려 한 게 아니라면 왜 정찰기를 파괴한 걸까? 초소형 정찰기가 무슨 위협이 된다고? 열? 잡음? 방사능? 연료 냄새? 무선 신호? 이 우모자 장치는 모기보다 더 작았다. 그것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야 감지가 불가능한 정도일 것이었다. 적어도, 대수롭지 않은 정도일 것이었다.

그랬어야 마땅하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 초소형 정찰기들이 어떻게든 감지가 가능하다면, 프로토스가 그것들을 파괴한 이유는 자명했다. 그것들이 다른 무언가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악한 무언가를.

“망할.”

제이크는 얼굴을 찌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가 이 행성계를 택한 것은 혼자 있고 싶어서였다. 이 세상은 변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있었기에, 프로토스나 저그와 마주치는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였어야 마땅했다.

“하!” 그가 말했다. “그런데 이 꼴을 보라지.” 용케도 둘 다 있는 행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의 일부는 도망치고 싶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뒷받침하는 그럴싸한 논리를 펼칠 수도 있었다. 밖의 태풍이야 어찌 됐든, 시체매로 돌아가서 시동을 걸고 굴 입구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된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최대한 빨리 출발하면 된다.

기회가 빨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 출발하면 될 것이다. 물론 시체매에 무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는 저그가 훨씬 고등한 기술을 지닌 프로토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았다. 제이크로서는 최대한 빨리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시체매가 있는 곳으로 후퇴한다면, 어둠 속에서 커져만 가는 두려움에 떨며 홀로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 그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겁쟁이에게 알곳은 점이 있다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용감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걸 제이크는 깨달았다.

그는 후퇴할 게 아니라, 그 수수께끼의 프로토스를 쫓아 전진해야 했다. 그는 뉴스에서 보도하는 뻔한 이야기밖에는, 프로토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 프로토스가 암흑 기사라는 건 알 것 같았다.

갈등 상황이 몇 번 있기는 했으나, 인간과 프로토스는 전쟁 중인 것은 아니었고 실은 협력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제이크가 아는 바로는 빈약하고 불확실한 관계였다. 아군도 아니고 적도 아니면서, 편리할 때만 손을 잡았다. 그는 이곳의 상황도 그런 것일까 싶었다.

그는 용암굴에 이어진 타원형 방의 건너편으로 조심스레 나아갔다. 아무래도 타원형의 폭발로 생성된 공간인 듯했다. 거대한 화산암 덩어리가 발밑에 울퉁불퉁하게 깔려 있었지만, 벽은 녹았다가 굳은 듯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토스 기계의 파편들이 설명된다. 그들은 제물이 된 것인가? 아니면 저그가 생물학적 자살 폭탄병, 맹독충을 사용한 것인가? 폭발하는 벌레들 말이다. 그게 더 그럴싸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방의 크기를 보니 폭발의 위력을 대충 알 것 같았다. 돌덩이들이 거의 녹아내린 것이나 여기저기 그을린

구멍이 있는 것 역시 맹독충이 뿜은 산성 물질의 흔적이 확실했다. 맹독충을 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 어느 방법을 쓰든 승산은 별로 없었다.

폭발 반경의 반대쪽, 용암굴이 다시 시작되는 곳에는 암흑 기사의 흔적이 없었다. 굴 안쪽으로 물러난 모양이었다. 싸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전진해도 된다는 뜻이리라. 그는 초소형 정찰기를 더 내보내고 싶었지만, 프로토스가 정찰기를 파괴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괜히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밀려오는 어둠을 전등 빛으로 가르며 굴 위로 올라가던 제이크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싼 산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벽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는 용암굴이 돌벽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러지는 않을 모양이었다. 앞쪽에 뭔가가 더 있는 듯했다.

암흑 기사는 어디로 간 걸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였다. 제이크는 암흑 기사가 유령처럼 자신을 은폐해서, 공기 중에 흐릿한 빛만 남기고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게 사실인지 몰랐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프로토스가 지금 바로 뒤에 있다 해도 모를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다.

#

래사타르는 나름대로 생각할 거리가 있었다.

생명의 주된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음으로써 살아남는다. 저그는 프로토스가 만난 생명체

중에 가장 해롭고 게걸스러운 생명체였다. 그리고 무리가 구역 전체로 퍼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전환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위험은 저그의 게놈에 존재했다. 저그는 다른 생명체를 흡수하여 그들의 강점을 동화시킴으로써 존재했다. 칼날 여왕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었다. 그 결과 저그의 군체의식이 더 강하고 더 위험해져, 최근의 프로토스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칼날 여왕의 지배력은 모든 저그 감염지에 뻗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그 생태계를 격리해서 연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저그를 연구하려고 하면 칼날 여왕이 바로 알게 될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실험을 조작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었고, 실험자들을 타락시키려 하기도 했다.

그리고 거리는 한계 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 군체는... 흔적도 없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종자들이 뭔가 해낸 것이었다. 래사타르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어딘가에서 칼날 여왕이 이미 같은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래사타르는 화산 안의 굴과 공동을 돌아다녔다. 그가 발견한 것은, 종자들의 제어 기구와 방어 장치의 파편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계획한 실험의 위력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증거를 살펴 보니, 종자들은 맹독충 무리에게 기습을 당한 듯했다. 탁 트인 곳이었다면 맹독충만으로는 기계를 모두 파괴할 수 없었을 테지만, 산속의 막힌 공간이다 보니 폭발력이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바위가 추적자와 불멸자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 잃은 것이었다.

군체가 전이하기 전에 파괴해야만 했다. 그러나 래사타르는 망설였다. 종자들이 저그 게놈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야 했던 것이다. 그가 지체하는 동안 군체가 자라나 퍼질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생물들의 본성과 그 위험성을 파악해야만 했다.

이상한 일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군체가 확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관찰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다. 또한, 효과적으로 군체를 파괴할 방법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젤나가 유물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로서는 저그 군체의 위협보다 유물의 힘이 더 두려웠다.

물론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상황에 내재하는 보다 강력한 힘을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었다. 화산을 어떻게든 깨워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 봉우리 전체가 저그 동지 위로 무너질 것이었다.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었다.

인간의 등장은 사소한 문제였다.

#

제이크는 천천히, 정연하게 용암굴을 계속 올라갔다. 삼십 분 후에도 용암굴 꼭대기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뒤돌아 내려갈 작정이었다. 그리고 태풍이 사그라들었다면 떠날 작정이었다. 이 화산에서, 이 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행성에서.

그는 멈춰 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자신의 피가 혈관을 흐르는 소리마저 들릴 것만 같았다. 다른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 고독한 느낌은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때... 발이 무언가를 스쳤다. 바위가 아닌 무언가를.

제이크는 밑을 내려다보았다.

“아... 점막이군.”

크지는 않았다. 축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그에게 영양분을 주고 다른 것은 모두 오염시키는 그 구린 물질인 것만은 확실했다. 그 안에 얽히고설킨 신경망은 소위 ‘의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일종의 방대한 사이오닉 망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잘 몰랐다. 하지만 점막을 발가락 끝으로 건드린 순간 자신의 존재를 저그에게 알린 셈이라는 건 알았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디에 있든, 모든 저그에게.

그로써 결론이 났다.

후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최대한 빨리.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몸을 반쯤 돌린 채 뒤로 뛰는가 싶더니, 비틀거리며 용암굴을 따라 내달렸다. 발을 똑바로 딛지 못해, 매끈한 흑요석 바닥 위에서 비틀거리고 미끄러졌다.

전등이 건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질주하고, 심장이 뿔박질을 했다. 넘어지는 바람에 유난히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했다. 몸을 틀고 옆치락뒤치락하면서 멈추려고 안간힘을 썼다. 거꾸로 곤두박질을 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용암굴의 경사가 잠시 완만해진 사이에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숨이 가쁘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도,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몸을 굴러 배를 바닥에 댄 다음 무릎을 꿇고 일어서서, 다시 아래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살 수 있다고 되뇌었다.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오래된 주문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마침내 그는 돌무더기가 가득한 방에 도달했다. “망할!” 이 방을 지날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지 몰라도, 한 순간만 잘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첫 번째 화산암 위로 뛰어내려 계속 전진했다. 부러진 추적자 다리를 움켜잡고 다음 돌덩이 위로 몸을 끌어올리고, 또 다음 바위로 뛰고, 불멸자의 금빛 장갑 파편을 걷어차고, 다음 바위로 기어올랐다. 반쯤 왔을 때 처음으로 소리가 들렸다. 발톱이 돌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 무언가가 반들반들한 동굴 바닥을 긁으며 내려오는 소리였다. 아주 많은 무언가가. 제이크의 경험으로는 뒤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아주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알 뿐이었다. 헬멧의 화면을 보니, 6 시 방향에서 붉은 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앞을 보니,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용암굴 아래쪽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는 뒤로 돌아 용암굴 위쪽을 향해 서서, 어깨에 매고 있던 무기를 손에 들고 대상 고정 영역을 용암굴 입구보다 조금만 더 넓게 설정했다. 탄약이 남아난다면, 적의 수가 많지 않다면, 적을 잠시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윤년의 열일곱 번째 목요일 보름달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허를 딱 알맞게 내민다면, 그리고 자정에 염소를 제물로 바친다면... 용암굴 아래쪽까지, 그리고 시체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태풍 따위 몰아치라지. 사냥개만 한 곤충들에게 갈가리 찢기느니, 시속 300km 의 바람에 휩쓸리는 게 나았다.

그가 준비를 겨우 마쳤을 때 저글링 세 마리가 위쪽 굴에서 튀어나왔다. 그를 구한 것은, 조준도 하지 않은 난사였다. 괴물들이 좌우로 흔들리는 탄도 안으로 바로 뛰어 들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소이수류탄을 한 개 발사했다. 날아가는 금속 총알, 새빨간 불꽃,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 방이 모든 소리를 그대로 반사하는 바람에, 제이크도 저글링들도 깜짝 놀랐다. 뭔지 모를 것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불타는 먼지 구름이 어둠 속에서 깜박였다.

운이 좋았어!

제이크는 다음 공격에 대비해 발을 고쳐 디뎠다. 이번에는 AGR-14 로 용암굴 안을 똑바로 겨냥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안쪽 깊은 곳에 총알을 퍼부었다. 헬멧의 화면에 표시된 탄약 수를 주시한 채였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았고, 탄띠도 두 개 남아 있었다. 저글링을 몇 마리나 더 죽일 수 있을까? 탄약이 그 정도로 충분할까? 아니면 결국 놈들에게 당하고 말 것인가?

세 마리 더 온다! 여섯 마리다! 끔찍한 비명을 내지르고 발톱으로 반들반들한 바위를 긁고 있었다. 또 수류탄이다! 저글링들은 활활 타는 살점이 되어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폭발음은 소름이 끼치도록 컸다. 어두운 방 속에서 불길이 더욱 밝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더욱 짙어진 먼지 구름이 불티로 깜박였다.

모의 전투 장치에서 보낸 시간이 낭비는 아니었다. 그는 혼자서도 싸워 보았고, 인공지능을 상대로도 싸워 보았고, 팀을 짜서도 싸워 보았다. 언젠가 진짜 저글링을 상대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간접적인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즐긴 것이었다. 놈들이 또 온다! 너무 많다! 악몽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 몇 마리째인지도 잊었다. 그는 무리를 향해 맹목적으로 총을 쏘며, 마지막 한 마리를 겨우 50 센티미터 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놈들이 또 공격해 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용암굴 입구로 기어오를 시간이 있을까? 그는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다가... 다음 저글링 무리가 덮쳐 오는 것을 못 볼 뻔했다. 아니다, 시간이 없었다. 셋, 넷, 여섯 마리다. 소이수류탄을 하나 더 써야 했다. 그는 놈들을 빠르게, 시끄럽게 날려 버렸다. 이제 요령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탄약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냄새가 났다. 불길과 그보다 더한 것의 악취, 그슬리고 불타는 괴물의 역겨운 냄새, 외계 생물의 내장 냄새에 죽음과 쏙과 알 수 없는 것의 냄새가 섞인 악취가. 또 점점 짙어지는 먼지 때문에 앞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었다.

제이크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었다. 위쪽 용암굴의 입구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머리 위로 바위가 떨어져 내리지 않게 굴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수류탄은 세 개 남아 있었다. 그걸로 할 수 있을까?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단 몇 초의 여유만 있으면—

저글링 열여섯 마리를 처치한 후에도 총소리가 아직도 용암굴에 메아리치고 있었고, 그을려 악취를 풍기는 살점 조각들이 아직도 벽에 들러붙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몇 초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용암굴 안쪽을 겨냥하고 총알을 맹렬하게 퍼부었다. 예광탄이 어둠을 가르면서 붉은빛과 노란빛의 궤적을 남겼다. 멀리서 비명 소리가

돌아왔다. 먼지 구름과 함께, 자갈과 저글링의 살점이 한데 섞여 굴에서 쏟아져 나왔다.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위치의 보호 덮개를 열고 발사 준비를 해야 했다. 버튼이 너무 많았다. 왜 하나만 만들지 않았더라? 그래, 안전 때문이었지. 다음엔 버튼을 좀 줄여야겠다. 나중에. 됐다! 시간이 딱 맞았어! 그는 용암굴의 천장을 겨냥하고 발사했다. 한 번, 두 번—

수류탄이 곡선을 그리며 용암굴 안쪽으로 날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니,

폭발의 반향으로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소음이 들려와, 제이크를 벽으로 날려 보냈다. 짧고 날카로운 충격이 지나간 후,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울리고 떨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바위 몇 개가 용암굴에서 떨어져 내리고 작은 돌덩이들이 그 뒤를 이었다. 불멸자와 추적자의 파편을 마저 물어 버리기에 충분했다. 방의 바닥을 높이기에도 충분했다. 기압 변화로 제이크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기에도 충분했다.

“진작에 이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번, 두 번, 세 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자기가 아직 살아 있다는 데 놀라고 정신이 말짱하다는 데 놀라서, 전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크게 헐떡였다. 이 저글링들은 뭔가 이상했다. 모의 전투 장치에서 본 저글링들과는 달랐다. 이것들은— 제이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컴퓨터에게 맡겨야겠다. 그는 쿵쿵거리며 뛰는 심장의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잠깐 쉬어야겠어. 휴식이 필요해—*

그는 방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먼지, 깜박이는 불티, 불타는 생체 파편을 둘러보았다. 저글링은 살덩이나 고깃덩어리는커녕 곤충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냥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울해졌다. 우주는 경이와 신비로 가득한 곳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건... 지옥이었다. 지하의 불길과 영원한 파멸이 있는 곳.

제이크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자, 그만하자. 걱정은 집어치우고 빨리 여길 떠야지.” 그는 아래쪽 용암굴 앞의 울퉁불퉁한 돌 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반쯤 올라갔을 때 문득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망할. 좀! 나도 좀 쉬자고!”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우주 전체에 대고 소리쳤다. 그게 운명이든, 천운이든, 무엇이든. “변태 같은 장난은 그만두라고.”

그는 바로 위의 툭 튀어나온 바위로 기어올랐다. 아직도 목표까지는 2 미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방 반대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런, 망할—”

벽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반대쪽에서 파고 있었던 것이다. 큰 놈이었다. 엄청나게 큰 놈이었다. 놈이 발톱으로 바위를 박박 긁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다른 놈이었다.

헬멧의 화면에는 그가 지닌 어떤 무기의 살상 범위보다 더 큰 물체가 나타나 있었다. 해석하자면 “뭔지는 몰라도 너보다 훨씬 세다”라는 뜻이었다.

“이건 재미없잖아.” 제이크가 우주에 대고 외쳤다. “지금까진 재밌었어. 이건 아니라고.”

그는 그러면서도 무기의 목표를 더 좁은 원으로 조정했다. 저 망할 것에게 상처라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놈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그 약점을 찾는다면 또 모를 일이다. 놈을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반대쪽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 표면에서 먼지가 일고,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더니 더 큰 돌덩이도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뒤의 검은 벽에 기대어 몸을 고정했다. 한 번은 맞출 기회가 있을 것이었다. 그는 전등으로 똑바로—

무언가가 벽을 뚫고 나왔다. 거대한 마체테처럼 춤을 추는 검은 날이었다. 다음 순간 반대쪽에서 날이 하나 더 튀어나왔다! 돌덩이가 우수수 떨어져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건 어마어마하게 컸다! 비현실적으로 컸다! 저게 대체 뭐지?

어딜 겨냥해야 하지? 아가리? 눈? 놈은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거대한 낫처럼 생긴 두 개의 뼈를 휘두르고 있었다. 아가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는 않았다. 무릎을 부딪 버리면 앞으로 쓰러질까—? 아, 집어치우고 그냥 씹 버려—

하지만 방아쇠를 미쳐 당기기도 전에 뭔가가 그의 눈 뒤에서, 귀 사이에서,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을 듯한 사이오닉 폭발의 여파가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색깔과 모습과 냄새와 소리로 절규하며, 차가운 불길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산뜻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했다.

그의 눈앞에, 그 암흑 기사가 양팔을 뻗은 채 서 있었다. 손가락이 네 개뿐인 그 손에서 불길이 타닥거리며 타올랐고, 화산암 방 저쪽으로 번개가 날아가 비틀거리는 괴물을 불태우고 반대쪽 벽으로 내동댕이쳤다. 괴물은 고통으로 껹껹거리며 몸부림쳤다.

제이크는 깜짝 놀라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것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져 밑의 바위에 머리부터 떨어졌다. 단단한 껍데기를 두른 육중한 살덩이가 쓰러지자 쿵 소리가 났다. 엄청난 악취가 넘실대며 밀려왔다. 이것은 울트라리스크였을지도 모른다... 더 크고 더 사나운 괴물로 변이한 것이 아니었다면.

“망할.” 제이크가 말했다. “망할, 망할.”

프로토스는 거대한 몸뚱이가 죽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꼼짝없이 서 있었다. 푸른 번갯불이 그것의 등에서 춤을 추다가, 마침내 연기와 먼지와 파편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방의 천장에서는 아직도 자갈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제이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까 싶어 전등을 비추며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방은 무너지지 않았다.

제이크는 부들부들 떨었다. 머리가 아팠다. 온몸이 쭈셨다. 사이오닉 폭발의 여파로 기진맥진한 것이다.

“이런...” 그는 숨을 고르고 마침내 말했다. “... 망할. 이런 걸 본 인간은 내가 처음일 거야.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 말이야. 저게 프로토스가 쓴다는 사이오닉 어찌고인가 보지. 저건... 또 다른 거고.”

그는 이미 전보다 사이오닉 잡음에 더 민감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기를 바랐다. 운이 좋으면, 폭발로 인해 그나마 얼마 안 되던 사이오닉 능력이 과부하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단편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은 많았지만, 유령으로 양성될 만큼 강한 능력을 지닌 인간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제이크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했다.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탈진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좋아, 제이크.”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여길 떠야지.” 그는 프로토스를 향해 돌아서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는—

—느닷없이 무기를 들어 발사했다! 반대편 벽에서 파도처럼 몰려오는 무리를 향해서였다. 무리 한가운데 난사한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수류탄이 작은 사태를 일으켰고, 돌벽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꿈틀거리는 저글링들을 돌과 먼지와 잔불 밑에 묻어 버렸다.

왜 프로토스가 저것들을 보고 폭발시키지 않은 거지? 프로토스도 휴식이 필요한가? 재충전을 해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사이오닉도 모두의 생각과 달리 만능 무기는 아닌 것이다. 제이크는 흥미를 느꼈다.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암흑 기사는 제이크를 향해 돌아서서 한 손을 들어 보였다. 감사의 표시인지 작별의 표시인지, 제이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뜻은 잘 알고 있었다. 여길 뜰 때가 된 것이었다! 암흑 기사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제이크는 마지막 바위 몇 개를 기어올라 아래쪽 용암굴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시체매가 있는 곳으로 힘겹게 걸어가서는, 조종석에 앉아 캐노피를 덮고 굴 입구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태풍이 아직 몰아치고 있었지만, 화면에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이제 태풍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태풍의 눈은 한참 북쪽에 있었다. 태풍이 섬 위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껴간 것이다. 바람은 아직 제이크의 성에 찰 만큼 잦아들지는 않았지만, 시체매는 기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제이크는 속도를 높였다.

돌아가는 길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기회, 환경, 상황, 선택, 난관, 결정— 짐을 싸서 떠나는 게 맞는 듯했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 프로토스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제이크의 생각으로는, 그럴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제이크도 암흑 기사의 목숨을 구했다. 빛은 깊은 샘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암흑 기사가 왜 하필 그때 나타난 것일까? 왜 그... 기이하게 변이한 울트라리스크를 죽인 것일까?

애초에 나타나긴 왜 나타난 것일까?

제이크는 어두워지는 밤을 달리며, 머릿속에서 좌절하여 소리를 질렀다. *망할! 그 녀석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야!*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

래사타르는 그런 후 잠시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힘이 빠지고 텅 비고 취약해져 있었다.

젤나가 유물의 힘을 이용한 것이었다. 아니, 젤나가 유물이 그를 이용한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젤나가 유물은 일종의 사이오닉 렌즈였던 것이다. 또한 더 대단하고 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젤나가 유물은 렌즈로서, 유물을 지닌 자의 사이오닉 능력을 증폭시키고 집중시켰다. 또한 젤나가 유물은 그것을 지닌 자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본연의 능력이 없는 이도 젤나가 유물의 사이오닉 능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다.

공격의 순간, 래사타르에게는 집정관만큼이나 강한 능력이 있었다. 어쩌면 집정관보다 더 강한 능력일지도 몰랐다. 젤나가 유물은 막대한 에너지장을 열어 주었지만, 유물을 지닌 자는 그 에너지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력을 모조리 써야 했다. 유물이 래사타르의 힘과 기력을 모두 빨아 가서, 그로써 그 자체의 사이오닉 능력을 강화하고 저그 공격자들에게 집중시켜 사이오닉 폭풍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유물이 사이오닉 능력이 더욱 강력한 자, 예컨대 집정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에 더해, 사이오닉 능력이 없는 자조차도 방대한 사이오닉 장을 접근해 그것을 집중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발견... 그 지식이 종족으로서의 프로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거의 수수께끼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래사타르는 자문해야 했다. 그는 누구로부터 유물을 지키고 있는가? 또 누구를 위해 지키고 있는가?

그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곳에서는.

우선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젤나가 유물도 그 상황의 일부였다. 이 고대 유물은 행하는 능력만 확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능력 또한 확장해 주었다.

이 맹랑한 저그 군체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크게 확장되었다. 작은 생명체, 즉 맹독충과 저글링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굴에서 밀고 내려온 거대한 변이 울트라리스크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분명히 드러났다.

그의 종자들은 정체성이 있는 저그를 만든 것이었다.

그는 종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깨달았다. 칼날 여왕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곳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산을 사이오닉 장으로 격리했다. 칼날 여왕은 이 군체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군체는 다른 저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고립된 채 겁에 질려 있었다. 격리장이 저그를 광장공포증의 악몽에 가두어 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였다. 그 공포가 문제였던 것이다.

생물 개체에게 정체성이 생기면, 그 정체성을 이어 가고자 하는 욕구도 생긴다. 즉, 생존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개체의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생존 욕구도 강해진다. 개체의 생존 욕구가 강해질수록 칼날 여왕이 영토의 티끌들에게 미치는 지배력은 약해진다.

이 실험에서, 종자들은 이 군체를 격리함으로써 저그의 내부적 균형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들이 하려던 일이 무엇이었던, 그들은 이미 성공했고... 실패했다.

저그는 후퇴를 몰랐다. 패전할 때조차도, 적이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게 하는 종족이었다. 하지만 동지를 구성하는 각 개체가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을 간파할 수 있다면, 정체성의 종말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었다. 군체의 각 개체가 자아를 인식한다면 그 군체는 분열될 것이었다. 저그의 모든 생물이 자신의 파멸이 다가왔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주저할 것인가? 공포에 질릴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그것은 일견 논리적인 결론인 듯 보였다.

그러나 종자들은 그 전제가 너무 단순하다는 걸 알기에는 미숙했다. 그들은 저그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면 두려움이 퍼질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착오였다.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착오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뻔한 착오지만, 이 참상의 설계자인 래사타르의 아랫것들은 그 억측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이다. 즉, 정신 작용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각적인 상황에 근거한 두려움도 있고, 상대적으로 근거가 박약한 두려움도 있다.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고려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인 것이다.

감정 스펙트럼의 아래쪽 끝에 자리한 슬픔, 두려움, 적의는 순간 순간이 서로 얹히며 만들어 내는 장대한 교향곡이다. 한편, 스펙트럼의 위쪽 끝에 자리한 기쁨은 훨씬 폭이 좁다. 실험자들은 저그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개미처럼 무분별한 존재이기에, 기쁨은 진화론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래사타르의 종자들은 가설을 수립할 때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래사타르가 종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 점을 그동안 만난 인간들에게서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기쁨은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 드문 것이었기에, 그만큼 소중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젤나가 유물을 발견한 곳에서 여자아이를 만났을 때도 그 점을 분명히 보았다. 그곳에는 인간 사신도 있었다. 여자아이가 가족에서 기쁨을 찾았다면, 사신은 살상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것은 사신이 알고 이해하는 유일한 기쁨이었다.

이곳의 저그는 가족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몰랐다. 대신 공격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공격을 즐겼을 테고, 공격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조차 즐겼을 것이다. 그들은 더욱 사나워졌고, 아직 그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훨씬 위험해졌다. 그들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잠시 동안, 래사타르는 실험자들이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성공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정체성이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하면, 정체성이 발달함에 따라 저그 무리 내부에 균열이 생길지도 몰랐다. 칼날 여왕이 정신체들에게 도전했을 때 발생한 내전이 그랬다. 그러나 칼날 여왕은 정신체들을 압도했고, 저그는 더욱 위험해졌다. 이 생물들이 칼날 여왕을 압도한다면, 그래서 저그가 더욱 무시무시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그 결과를 직접 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이 군체의 성장을 막아야 했다. 이 생물들이 임계량에 이르면, 사이오닉 장으로 격리된 산의 경계 밖으로 쏟아져 나갈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놈들이 이 세상 너머로 퍼질 것이었다—

래사타르는 자신에게 동지를 파괴할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인간에게는 있었다. 래사타르는 그를 이용해야 했다.

인간 중에는 원시적인 사이오닉 능력을 지닌 자가 많았다. 직감, 예감, 설명할 수 없는 우연 등, 인간들이 근거 없는 느낌이라 치부하는 동물적인 본능이 그것이다. 드물게는, 능력을 인식하고 제어하고 훈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지닌 인간도 있다. 인간들은 ‘유령’이라는 사이오닉 전사를 훈련하는 사관학교까지 설립했다.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도 기본적인 사이오닉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래사타르에게 일시적으로 집정관의 힘을 부여한 젤나가 유물이, 이 인간의 사이오닉 수신 능력도 일깨우고 확장했다.

물론 인간이 그것을 전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느끼기는 할 것이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젤나가 유물이 일으키는 사이오닉 폭발에, 화산이 폭발하는 심상을 입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저그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었다.

인간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

제이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몰라도 알고 있었다.

마치 산을 구석구석 직접 다니기라도 한 듯이, 그는 모든 굴과 공동을 알고 있었다. 마치 사이오닉 점막에 직접 연결되기라도 한 듯이, 측수 하나하나가 어디에 뻗어 있고 퍼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유기적 생체 컴퓨터라도 되는 듯이, 이 화산을 폭발시켜 동지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치 몸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라도 한 듯이, 마치 자신이 창조주라도 되는 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망할 프로토스 같으니!” 그가 말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의 정신에 간섭이나 하는 오지랖 넓은 자식!” 그는 시체매의 조종간을 내리쳐서, 시체매를 착륙선 격납고 옆에 세웠다. “꼭 그대로 하진 않아도—”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망할.” 그가 말했다.

그의 두뇌에 비집고 들어온 생각, 감정, 심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대로 해야만 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다. 마치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저그를 궤멸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하늘에 대고, 무지막지했던 태풍의 마지막 흔적을 향해 소리쳤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어?” 그는 두 팔을 들고는 두 주먹을 흔들어 댔다. “프로토스! 태풍! 거대 저그 괴물?! 감염된 화산? 그래, 알아! 인생은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이걸 좀 지나친 거 아냐?!”

대답이라도 하듯 머리 위에서 우렛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가까웠는지, 그는 휘청거리다가 쓰러질 뻔했다.

“알겠어, 알겠다고.” 제이크가 가다듬으며 말했다. “난 의견을 말할 권리도 없군.”

그의 기지인 착륙선에서, 그는 주 화면을 켜고 거주민 우주선을 호출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었다. 계산할 게 많았던 것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 거주민 우주선에는 자급자족의 거주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이 모두 탑재되어 있었다. 강력한 기계는 물론, 제대로 된 폭발물도 실려 있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으로는 괜찮다.

제이크는 이미 나름대로 탐사정을 내보내 지질 조사를 해 두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프로토스가 준 초지식으로 정보를 보강해야 했다.

무지막지한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불어온 쪽의 산비탈이 약해져 있었고, 산은 충격을 받을 때마다 점점 심하게 흔들렸다. 분화구는 부분 부분 약해져 있었다. 여기, 여기, 또 여기. 북서쪽 비탈의 수목한계선 바로 위에 일곱 개의 용암굴이 있었는데, 일곱 개가 모두 잠든 화산의 핵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주민 우주선에서 채광용품이 든 화물 낙하기를 떨어뜨린 후, 그 안의 폭발물을 탐사선에 탑재하면 될 것이었다. 일곱 개의 용암굴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 산의 북서쪽 비탈을 무너뜨려 분화구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 보았다. 개중에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 돌려 보았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산을 폭발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산도 폭발하고 싶어 했지만, 폭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준비를 시켜야 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었다.

그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망할 놈의 프로토스 같으니! 망할 그놈의 눈 같으니!” 제이크는 으르렁거렸다. “무슨 권리로 내 머리에 이상한 걸 집어넣은 거지?! 난 그놈 머리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는데. 내가 인사밖에 더 했어? 그런데 세뇌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는 줄 알았나 보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그를 죽일 방법을 찾는 게 재미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의 기쁘기까지 했다. 시뮬레이션에서 화산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큰소리로 웃었다. “하하! 진짜로 저럴 수만 있다면 지릴 텐데!”

“좋았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여 주지!” 그의 손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춤을 췄다. 그는

열광으로 들떠 조금하게 명령을 내뱉었다. “화산과 사랑을 나누는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걸 전희일 뿐이지. 하지만 끝나고 나면 최고의 경험이 될 거야!”

제이크는 자신이 그 외곶의 목표에 홀렸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과 즐거움이, 심지어는 황홀감이 솟아났다.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기엔 너무 재미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가 무슨 기술을 이용하든 저그가 색출해서 파괴하면 끝이라는 점이었다. 그 점 또한 계산에 넣어야 했다. 저그가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시간을 벌어야 했다.

흠...

그래.

미끼다. 미끼를 설치해 저그의 주의를 끌어야겠다. 놈들이 모두 목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지만, 폭파 장치에서는 먼 곳에 있어야 했다.

됐다. 이제 자원을 다시 살펴보고 어떻게 이용할지 정해야 했다. 그는 더 많은 시뮬레이션, 더 많은 시나리오를 돌려 보았다. 그는 ‘마우나 코알라’라고 부르게 된 화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시뮬레이션의 54%에서만 그가 바라는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섬 전체를 흔적도 없이 파괴해야 했던 것이다.

섬이 조금이라도 남아난다면, 저그 생체가 한 점이라도 살아남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었다.

그는 좌절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시나리오를 더 돌려 보았다. 이 일은 재미있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해결책에 가까워졌지만, 진행이 너무 느려서 짜증이 나고 조바심에 화가 났다. “이보시오, 암흑 기사 씨.” 제이크는 보이지

않는 프로토스에게 말했다. “문제를 줄 수 있었으면, 해결책도 줄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방법이 있었다. 제이크는 머릿속에서 그것을 ‘과잉 살상 작전’이라고 불렀다. 성공하긴 하겠지만 자원을 몽땅 써야 하는 방법이었다. 거주민 우주선에는, 조심스럽게 포장한 폭발물과 지게로봇이라는 채광 로봇이 탑재된 화물 낙하기가 아홉 대 있었다. 용암굴 하나에 한 대씩은 필요할 것이므로, 아홉 대를 모두 낙하시켜야 했다. 폭발물을 탐사정에 고정하는 데 하루가 걸릴 테고, 용암굴에 하나씩 설치하는 데 하루가 더 걸릴 것이었다. 그리고 굴 위쪽으로 다른 탐사정을 들어 보내 잡음을 발생시켜야 했다. 잠을 안 자고 계속 작업을 한다면—

성공할지도 몰랐다. 성공해야만 했다. 계획이 확실해지자마자 그는 거주민 우주선에 낙하기 아홉 대를 떨어뜨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가장 가까운 발사 가능 시간대에 막 진입한 상태였다. 낙하기는 두 시간이면 도착할 것이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해야 하겠지만, 할 만한 작업이었다. 탐사정의 설정을 변경하고, 폭발물의 무게를 고려해 중량 대비 동력 비율을 조정하고, 폭파 장치를 다중 대역 신호와 동기화해야 했다.

지질 조사에 따르면, 산에는 침식, 지진, 오래전의 분화로 인해 생성된 깊은 균열이 몇 개 있었다. 제이크는 지게로봇을 그 공동으로 몰고 간 다음, 액체 폭발물을 균열에 부어 핵으로 흘려보낼 것이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동시에 폭파하면 된다.

만약 성공한다면,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 분화구가 붕괴하고 북서쪽 비탈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산 전체가 폭발할 것이다. 폭발이 방출하는 힘으로

인해, 분화구가 마저 부서지면서 이차 붕괴를 일으킬 것이다. 그 충격으로 산 밑의 마그마가 분출하면, 섬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제이크는 멀리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궤도에서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제도에서 가장 작은 섬도 그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 섬은 폭파 지역으로부터 300 킬로미터 북서쪽에 있었다. 저그가 사라지고 나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시나리오를 몇 번 더 돌려 보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았다. 조금씩 다른 방안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모두 과잉 살상 작전의 변형이라는 게 금세 분명해졌다.

제이크는 한숨을 내쉬었다. “망할. 더 쉬운 방법은 없어. 더 나은 방법도 없고.”

그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망할 프로토스가 잘 피해 있었으면 좋겠군. 내가 찾아 나설 생각은 없으니까.”

#

래사타르는 첫 번째 화물 낙하기가 떨어지는 순간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제이크가 지게로봇을 용암굴로 몰고 갔을 때는, 이미 인간이 무슨 일을 할지를 파악하고 화산에서 빠져나온 후였다. 인간을 위해서, 저그의 주의를 끌 프로토스 기계는 조금 남겨 두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더 있었다. 저그가 진동을 느끼고 무슨 일인지 조사하려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균열에 액체 폭발물을 주입하고 있는 채광 로봇을 발견하면 바로 공격할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을 지닌 이 저그는, 제이크의 계획을 알면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군체 전체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럴 경우 각 개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공황에 빠져 도망가는 개체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래사타르가 저그를 모두 화산 안에 가두어 두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저그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다. 저그가 위협을 감지하면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는 저그의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 움직일 작정이었다.

#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시작되었다.

저글링 한 마리가 화산암 표면의 깊은 균열에 액체 폭발물을 주입하고 있는 지게로봇을 발견했다. 그것은 비명을 질렀다. 폭발성의 산성 액체가 등딱지를 파고들자 팔짝팔짝 뛰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다른 한 마리는 탐사정 하나가 용암굴 위로 폭발물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주저했다. 그것은 생소한 존재로부터 물러났다. 또 한 마리는 불길하게 재깍거리는 커다란 소포를 발견했다. 그것은 저글링답지 않게 호기심을 느끼고,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소포를 등지 깊숙이 가져갔다.

저글링들은 하나씩 하나씩 점막으로 돌아와서, 미지의 인간 기계와의 조우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종합했다. 첫 반응은 반신반의였고, 그 다음 반응은 우려였다. 그 다음으로는, 저그에게 생소한 불쾌한 감정이 찾아왔다.

개체에게는 작은 혼란이었지만, 집단으로 확대되자 어마어마한 혼돈이 되었다. 직접 접촉하지 않은 저그조차 동료들의 집단적인 동요에 겁을 먹었다.

공황이 시작되었다. 일부 저글링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또 일부는 굴 깊숙이 도망쳤고, 일부는 위로 탈출하려 했다. 대부분은 모여서 역공을 준비했다. 하지만 누구를 공격해야 하나?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 혼란에 빠진 뇌 속에서, 그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그 떨리는 살점 속에서, 그 몸 안에서 혼란과 빛이 방망이질 쳤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멈춰 섰다. 일부는 쓰러졌다. 일부는 얼어붙었다. 일부는 마비된 채 전율했다. 맹독충들은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그러고는 더욱 심해졌다. 방망이질 소리는 점점 커져서, 사이오닉 강타가 되었다. 화산 구석구석으로 뻗어 있던 점막의 촉수들이 바위로부터 움츠러들었다. 저그 군체는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떤 저그 군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속의 저그가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발작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비명과 괴성을 내지르고, 신음하고 혈떡거리고,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그때—

탐사정들이 차례차례 추진기를 점화했다. 과열된 불길이 휴면 중인 핵을 향해 용암굴을 치달아, 화산암을 용융점까지 가열했다.

우렛소리가 화산을 뒤흔들었다. 산비탈에서 먼지 구름이 솟았다. 화산의 가파른 사면에서 돌덩이들이 후두둑 굴러 떨어지며 작은 사태를 일으켰다. 작은 사태는 큰 사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산이 더 뜨거워질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한 구역이 0.5 초 정도 빨리 터졌지만, 나머지는 계획대로 터졌다. 예정된 대로 순차적인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다.

산이 진동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먼 곳에서 지켜보던 제이크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망할!”이었다.

그때... 돌연 연기가 한 줄기 솟았다. 산이 또 진동했다. 진동은 점점 길어지고 강해졌다. 그러더니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끝내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화산의 북서쪽 비탈이 툭 불거지더니 무섭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고는 폭발했다.

갑작스레 시작된 우렛소리는 멧을 줄을 몰랐고, 먼지 기둥과 불타는 돌덩이가 참화와 파괴를 상징하는 탑과도 같이 하늘 높이 치솟는 동안 점점 커져만 갔다. 활활 타는 돌덩이가 사방으로 치솟아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분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김을 내고 있는 몇 킬로미터 반경 내의 바다에 용암을 떨어뜨릴 것이었다.

“이런 세상에!”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갑자기 기쁨을 느꼈다. 놀라울 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압도적인 감정의 물결이 그를 덮쳤고, 그 충격에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정신이 맑아지면서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기쁨이 몰려왔다.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기쁨, 내면의 기쁨이었다. 평화의 기쁨이었다.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알 수 있었다. “저 정도면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겠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자기가 소리 내서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헬멧의 화면을 살폈다. “나조차도 말이야.”

그는 시체매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암흑 기사 동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제이크가 말했다.

프로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이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 사이오닉 폭발을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암흑 기사는 그 일로 기진맥진한 모양이었다.

제이크는 경이에 사로잡혀 바라보았다. 프로토스가 기진맥진하다면 곤약한 상태인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신뢰의 표시인가? 제이크가 자신이 약한 틈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 믿는 것일까?

아니면 제이크가 착각하는 걸까?

그때 프로토스가 한 손을 들었다. 인사였다.

그것은 제이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고마움. 동지애. 동질감? 그런 것이었다.

“아, 그러니까—”

암흑 기사는 그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이크는 순간 공포를 느꼈다. 이제 그가 쓸모없어진 것인가?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프로토스도 같은 기분인 모양이었다.

제이크는 씩 웃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인 거요?”

프로토스는 관찰을 끝내고 사라졌다.

“아... 아닌 모양이네.”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 아직도 높이 솟고 있는 연기와 불꽃의 기둥을 바라보았다. “그래, 여길 뜰 때가 됐군.”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